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6



# Contents

※ 2026.04.16.(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4.09.~2026.04.15.)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 탄소중립 분야 1

- 金총리, AZEC+ 정상회의 참여...에너지 공급망 정책 공조 제안 (2026.04.15) .....1
- 중기부, 공급망 연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참여 기업 30개사 모집 (2026.04.13) .....1
- 김해시, 탄소중립 실천 실패사례 공모...참여자 1만 포인트 지급 (2026.04.15) .....2
- 경북도, 탄소중립 분야 '기후테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2026.04.15) .....2
-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 개최 (2026.04.14) .....3
- 안양그린마루,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 운영 (2026.04.14) .....3
- 광명시, '1.5°C 기후의병'과 탄소중립 축제 모니터링 실시 (2026.04.14) .....3
- 청주시, 유아 대상 '탄소중립 실천 인재 양성 사업' 추진 (2026.04.13) .....4
- 목포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 (2026.04.13) .....4
- 상주시, 전기이륜차 110대 보급...상반기 90대 우선 지원 (2026.04.12) .....4
- 태백시, 탄소중립연료 포럼 참석...청정메탄을 사업 방향 제시 (2026.04.12) .....5
- 과천시, 공용차량 친환경 전환 확대...올해 전기차 5대 도입 (2026.04.10) .....5
- 파주시새마을회, '헌 옷 모으기'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9) .....6
- 김포 금파초, 계양천 플로깅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9) .....6
- 경기도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실태 점검..."정책만 있고 실행은 미흡" (2026.04.09) 6

▪ AI 분야 7

- 정부, 로봇·AI자율주행차 등 4대 '메가특구' 추진...규제 대폭 간소화 (2026.04.15) .....7
- 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총에 "피지컬AI 공포감 불필요...현장과 공동 대응" (2026.04.10) 7
- 국민성장펀드, 소버린AI 등 6개 분야 2차 메가프로젝트 확정 (2026.04.14) ..... 8
- 거제시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순항 (2026.04.14) ..... 8
- 울산, 조선업 특화 초거대 AI 구축 사업 착수...총 400억 원 투입 (2026.04.10) ..... 9
- 상주시, AI 활용 마을리빙랩 사업계획 수립...주민 역량 강화 (2026.04.11) ..... 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0

▪ 탄소중립 분야 10

- 탄소중립 공론화 결과 둘러싼 논란..."편향" vs "헌재 판결 기반" (2026.04.15) ..... 10
- 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26.04.13) ..... 10
- 서산 바이오가스화시설, 국내외 주목받는 탄소중립 성공 모델로 부상 (2026.04.15) .... 10
- 의왕도시공사, 미래탄소중립포럼과 협력체계 구축 (2026.04.14) ..... 11
- 과천도시공사, 관문체육공원에 '저관리형 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13) · 11
- 한국남부발전, 창립 25주년 기념 하동에 '탄소중립 숲' 조성 (2026.04.09) ..... 12
- 증평 지역 금융기관·시민단체,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2026.04.09) ..... 12

▪ AI 분야 13

-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운영기술 베트남 첫 수출 (2026.04.12) ..... 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13

▪ 탄소중립 분야 13

- 요기요, 다회용기 배달 확대·일회용품 줄이며 2050 탄소중립 선언 (2026.04.15) .....13
- 강원랜드, 태백산 '희망의 숲'에 나무 600주 식재...ESG 실천 (2026.04.15) .....14

▪ AI 분야 15

- 제주은행, 지방은행 유일 'AI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범사업 참여 (2026.04.14) .....15
- 에이블클라우드·베슬AI, 국산 클라우드-GPU 플랫폼 통합 협력 추진 (2026.04.15) ....15
- AI반도체 딥엑스, 양산 7개월 만에 30여 개 고객사 확보...올해 매출 300억 목표 (2026.04.14) .....15
- SK그룹, 창립 73주년 맞아 창업세대 메시지 AI로 재현 (2026.04.14) .....16
- AI모델, 프리미어리그 모의 베틱에서 모두 손실..."지식-행동 격차" 확인 (2026.04.12)16
- Z세대, AI에 대한 기대감 급감...분노 비율 31%로 증가 (2026.04.11) .....1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b>금총리, AZEC+ 정상회의 참여...에너지 공급망 정책 공조 제안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민석 국무총리가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 한국은 비상경제본부 출범,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 26조20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등 총력 대응 중임을 소개.</li> <li>- AZEC은 일본 주도로 2023년 설립된 아시아 탈탄소 협력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AZEC 회원국 11국 외 한국·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동티모르·IEA·ADB 등이 참여. 에너지 공급망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 체계화·제도화 필요성이 논의의 핵심.</li> <li>- 참석자들은 현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간 정책 공조 틀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공감대 형성. 아시아 경제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한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제고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li> </ul>
	<p>☐ <b>중기부, 공급망 연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참여 기업 30개사 모집 (2026.04.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6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 기업 30개사를 모집. 탄소 배출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비 컨설팅·시장조사·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li> <li>- 원청 기업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청 기업과 협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구조.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양부처	<p>기후 공시 등 향후 규제 부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원청 기업과 공급망 내 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공급망 전반의 긍정적 효과 확산을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li> </ul>
지자체	<p><b>□ 김해시, 탄소중립 실천 실패사례 공모...참여자 1만 포인트 지급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가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을 공유받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탄소중립 고백 대잔치' 공모를 추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만 14세 이상 김해시민이나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li> <li>- 에너지 절약·자원 재활용 등 탄소중립 시도 과정의 실패 상황과 원인, 개선 아이디어를 김해시 누리집 '기후지킴이 포인트'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 작성 기준 충족 시 1인당 1만 포인트의 기후지킴이 포인트 지급.</li> <li>- 접수된 사례는 유형별 분류 및 원인 심층 분석을 거쳐 향후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대표 사례는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제고 계획.</li> </ul> <p><b>□ 경북도, 탄소중립 분야 '기후테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가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청정에너지·탄소 포집·자원 순환 등 탄소중립 분야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li> <li>- 시제품 제작 인증, 기술 자문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4월 21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li> <li>- 탄소중립 관련 기후테크 산업의 초기 단계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경북도의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의 일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 개최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이 14일 상지대 본관에서 개최. 박기관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 맹순재 시 기후대응과장, 전용한 센터장 등이 참석.</li> <li>- 서포터즈단은 시민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참여 조직으로 3기째 운영.</li> <li>-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상지대학교 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서의 의미 보유.</li> </ul>
	<p>□ <b>안양그린마루,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 운영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양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안양미리내공유학교 내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를 운영 중.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부터 대응 방안까지 전 과정을 탐구하는 프로그램 구성.</li> <li>- AI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구를 도입하고,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업으로 환경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2차시 운영.</li> <li>- 교육 과정에 에너지 전환 개념 학습, 기획전시 관람, 재생에너지 원리 이해, 태양광 충전식 조명 키트 제작 실습 등 포함.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 환경교사 연수 과정에서 논의된 지역 협력 방안이 구체화된 결과.</li> </ul>
	<p>□ <b>광명시, '1.5℃ 기후의병'과 탄소중립 축제 모니터링 실시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시가 '2026 한내천 봄꽃축제'에서 1.5℃ 기후의병 20명이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 자원·물품, 에너지·시설, 폐기물 관리, 실천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민 인식 조사를 병행.</li> <li>- 광명문화재단이 기존 플라스틱 X-배너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광판을</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시범 도입하고, 시민 참여 이벤트 경품으로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 굿즈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 실천 사례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10개 행사 시범 운영을 기반으로 올해 모니터링 대상 행사를 14개로 확대 추진. 시민 주도 탄소중립 행사 운영 모델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접근.</li> </ul>
	<p><b>□ 청주시, 유아 대상 '탄소중립 실천 인재 양성 사업' 추진 (2026.04.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시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 인재(유아) 양성 사업'을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선착순 모집 결과, 첫날 조기 마감되어 총 49개반 791명이 참여 확정.</li> <li>- 교육은 4월 20일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 에코리더 전문 강사 4명이 '아낌이의 슬기로운 즐기생활', '지구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요' 등 주제로 수업 진행.</li> <li>- 버려진 종이를 활용한 단풍씨앗 만들기, 생물 그림 도장을 활용한 손수건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포함. 유아기부터 올바른 환경 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 방침.</li> </ul>
	<p><b>□ 목포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 (2026.04.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 전기이륜차 8대에 대해 차종별 경형 최대 140만 원부터 대형 최대 30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li> <li>-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 보유한 만 16세 이상 개인,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4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li> <li>- 전기이륜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의 일환.</li> </ul>
	<p><b>□ 상주시, 전기이륜차 110대 보급...상반기 90대 우선 지원 (2026.04.12)</b></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을 4월 13일부터 접수. 올해 총 110대 보급 중 상반기 90대 우선 지원.</li> <li>- 전체 물량의 10%는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 보조금은 차종별 경형 140만 원부터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li> <li>-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li> </ul>
	<p><b>□ 태백시, 탄소중립연료 포럼 참석...청정메탄올 사업 방향 제시 (2026.04.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백시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연료 포럼'에 참석하여 '태백 바이오메탄올 및 e-메탄올 생산 계획'을 발표. 탄소중립연료기술연구회·KAIST 연소기술센터·한국과학기술원 주관으로 16개 산·학·연 기관 참여.</li> <li>- 김학조 시 국가정책과장이 경제진흥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될 청정메탄올 사업에 대해 발표. 메탄올 시장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규제개선, 경제개발 특례 강화, 실증협력센터 구축 등 정책적·제도적 방안 제안.</li> <li>-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대체산업 육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청정메탄올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li> </ul>
	<p><b>□ 과천시, 공용차량 친환경 전환 확대...올해 전기차 5대 도입 (2026.04.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천시가 공용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올해 기존 디젤 버스를 승합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 화물트럭을 신규 도입하는 등 총 5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 계획.</li> <li>- 공용차량 신규 구입 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도입하는 방침을 적용 중. 공용차량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기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차량의 경우에도 향후 전기차 모델 출시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 전환 추진 방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li> </ul>
	<p><b>□ 파주시새마을회, '헌 옷 모으기'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시새마을회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이웃 사랑을 위해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헌 옷 모으기' 행사 진행. 회장단 및 각 읍면동 회장 등 40여명 참여.</li> <li>- 각 읍면동에서 사전 수거한 헌 옷을 집하하여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 예정. 재활용 수익금 전액은 '쌀 나누기'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 재원으로 활용.</li> <li>- 파주시새마을회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과 함께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 지속 계획.</li> </ul>
	<p><b>□ 김포 금파초, 계양천 플로깅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 금파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학교 앞 풍년교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계양천 플로깅 활동을 실시. 김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된 실천 중심 환경교육의 일환.</li> <li>- 참여 학생들이 '반려 하천'인 계양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하천 주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며 지역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 시민 참여 확대·환경교육 강화·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li> <li>- 양경말 교장은 살아있는 교육이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방침 표명.</li> </ul>
<p><b>□ 경기도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실태 점검..."정책만 있고 실행은 미흡" (2026.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3030 도민행동이 발표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현황조사 보고서에</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관련 조례는 제정했으나 실제 이행 노력,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지자체는 경기도·광명·수원·과주 등 4곳에 불과.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 마련한 곳은 광명·광주·성남 등 3곳 뿐.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일회적 수준에 머무는 상황.</li> <li>- 도민행동은 민관 모든 구성원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와 협의 틀을 통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제안. 기후대응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장 필요성도 제기.</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부, 로봇·AI자율주행차 등 4대 '메가특구' 추진...규제 대폭 간소화 (2026.04.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 전국 2,400여 개 소규모 특구를 대규모 특구로 개편하는 구상.</li> <li>- 메가특구 내 환경영향평가·인허가 절차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전 기업과 직원에 추가 혜택 검토 예정. AI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임시운행허가 권한 부여, 대규모 주행데이터·GPU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 광주가 AI자율주행 분야, 전남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실상 확정적.</li> <li>-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인허가·승인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 50% 이상 감축과 불필요한 행정 규제 폐지 방침.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추진.</li> </ul> </li> <li>□ <b>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총에 "피지컬AI 공포감 불필요...현장과 공동 대응" (20</b></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양부처	<p><b>26.04.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AI 기술의 일자리 위협 우려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AI 도입이 일자리 소멸을 추구한다며 사회안전망·노동권·초과이윤 환수 등 종합적 대책과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을 제안.</li> <li>- 이 대통령은 “다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피지컬 AI는 숙련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하므로 노동자의 협조와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li> <li>- 노동계에서 AI 도입 관련 대책을 논의해주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수용하여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관련 관심도 요청.</li> </ul> <p><b>□ 국민성장펀드, 소버린AI 등 6개 분야 2차 메가프로젝트 확정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를 확정, 소버린AI·바이오·OLED·미래모빌리티·에너지·지역거점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 공개. 소버린AI 생태계 확장 사업은 AI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기반모형·응용서비스까지 AI 산업 전반 지원.</li> <li>- 국민성장펀드는 공공자금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매칭하여 5년간 총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구조. 향후 4년간 50조 원 규모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며, 민관합동펀드 35조 원(간접투자)과 직접투자 15조 원으로 구분.</li> <li>-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첨단산업계가 글로벌 투자전쟁·에너지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며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성을 강조.</li> </ul>
지자체	<p><b>□ 거제시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순항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제시보건소가 3월부터 추진 중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순항. 혈압·혈당 측정기, 손목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어르신 19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걷기, 혈압·혈당 측정, 제때 약 복용 등 생활 속 건강 실천을 지원. 간호사 등 전담인력이 비대면 모니터링과 유선·방문 상담을 병행하며 건강상태 지속 관리.</li> <li>-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맞춤형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 도움 제공.</li> </ul>
	<p><b>□ 울산, 조선업 특화 초거대 AI 구축 사업 착수...총 400억 원 투입 (2026.04.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80여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선업 특화 초거대 AI 구축 사업을 본격화. 설계부터 가공·용접, 의장, 시운전까지 전 공정의 지식을 학습한 '슈퍼 전문가형 AI' 개발 목표.</li> <li>- 생산 일정 예측과 공정 최적화, 품질 불량 사전 감지, 숙련 기술자 노하우 축적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조선 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조선업 적용 후 자동차·석유화학·비철금속 등 주력 산업으로 확대 계획.</li> <li>- 김두겸 울산시장은 AI 기술을 주력 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 표명. 울산은 'AI 수도'를 목표로 AI 집적단지 조성 등 16개 AI 과제를 추진 중.</li> </ul>
	<p><b>□ 상주시, AI 활용 마을리빙랩 사업계획 수립...주민 역량 강화 (2026.04.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시의 2026년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에서 생성형 AI(클로드)를 활용한 마을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교육이 핵심 내용으로 진행. 마을연구원의 아이디어를 교육·계획 수립·심사·실행 단계로 연결하는 연간 운영 구조로 추진.</li> <li>- 참여자 연령대가 높고 AI 도구 사전 경험이 적었으나, 2회차 종료 시점에 대부분의 마을연구원이 사업계획서 초안의 기본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에 도달. AI 활용 능력보다 마을 정보를 항목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작동.</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마을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일회성 제안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 지산관학 협력체계가 역할 분담 중심으로 작동하는 운영 방식.</li> </ul>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탄소중립 공론화 결과 둘러싼 논란…"편향" vs "현재 판결 기반"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77.9%가 조기감축경로를 지지. 숙의 전 1차 조사(51.2%)보다 26.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론화 과정 만족도는 98.3%로 집계.</li> <li>-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설문 편향성과 산업계 입장 미반영을 지적하며 공론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 반면 시민단체는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반한 공론화이므로 현재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li> <li>- 기후특위 임기가 5월 말까지로 임박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부각.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인 53% 폐기와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한 장기감축경로 논의를 촉구.</li> </ul>
	<p>☐ <b>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26.04.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녹색제품 생산·구매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에는 녹색제품 관련 직접적 세제 지원 규정이 부재.</li> <li>-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녹색제품 구매 시 3~5% 세액공제, 소비자 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 30% 소득공제 포함.</li> <li>-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적. 조 의원은 지난 2월 기후위기 적응법도 대표 발의하는 등 기후 대응 정책 마련에 지속 참여.</li> </ul>
지방기관	<p>☐ <b>서산 바이오가스화시설, 국내외 주목받는 탄소중립 성공 모델로 부상 (2026.04.15)</b></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 국회 기후행동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과 탄자니아 관계자 등이 방문하여 견학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관심 지속. 목포시 관계자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li> <li>-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하수슬러지·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4종을 하루 320톤 규모로 통합 처리하는 전국 최초 시설. 개별 처리 대비 약 160억 원 설치비 절감, 바이오메탄 활용으로 연간 약 10억5000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li> <li>- 민간 발전사 바이오메탄 판매 연간 약 4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약 3000만 원 수익 창출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한 자원순환형 시스템으로 평가.</li> </ul>
	<p><b>□ 의왕도시공사, 미래탄소중립포럼과 협력체계 구축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도시공사가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련 정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 목적.</li> <li>- 양 기관은 임직원 전문성 및 실무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정책 발굴, 대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친환경 경영 체계 고도화를 공동 추진할 계획.</li> <li>- 노성화 사장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이 공공기관의 선도적 핵심 과제를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구현 방침 표명.</li> </ul>
	<p><b>□ 과천시도시공사, 관문체육공원에 '저관리형 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6.04.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천시도시공사가 도시 녹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관문체육공원 녹지대 일부를 '저관리형 정원'으로 전환.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육이 왕성한 식물 군락을 조성하여 인위적 관리 요소 최소화.</li> <li>- 소형 상록교목을 중심으로 사초류와 다년생 초화류를 배치하고, 메주석·화산석을 활용한 암석정원 기법으로 잡초 발생을 자연적으로 억제. 마사토 천연 멀칭 방식으로 토양 수분 증발 방지 및 용수 소비량 절감.</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농약 사용 절감과 식물의 자연 순환을 유도하는 친환경적 녹지 환경 조성. 단순 경관 개선을 넘어 환경 부하를 줄이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 모델.</li> </ul>
	<p><b>□ 한국남부발전, 창립 25주년 기념 하동에 '탄소중립 숲' 조성 (2026.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남부발전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경남 하동군 황천면 전대리 일대에서 굿피플·하동군산림조합 등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숲 조성' 식목 행사 개최. 민·관·공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li> <li>- 하동빛드림본부와 굿피플이 총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동 조성하여 내화수(헛개나무 1,170주)와 밀원수(아카시나무 1,000주) 등 총 2,170주를 약 1ha 규모로 식재. 연간 약 14톤의 CO2 저감 효과 기대.</li> <li>- 밀원수 숲 조성을 통한 꿀 생산 기반 마련으로 양봉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전망. 지난해 11월에도 하동 일대에 6,000평 규모의 밀원수 숲을 조성한 바 있어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 전개.</li> </ul>
	<p><b>□ 중평 지역 금융기관·시민단체,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2026.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평자원순환시민센터가 중평농협·중평새마을금고·중평신협과 폐휴대폰·전자제품의 친환경 수거·재활용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실천업무 협약' 체결.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목적.</li> <li>- 'ESG나눔 모두 비움'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요청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과 순환자원 생산실적 등 정량화된 ESG 성과 데이터 제공 및 참여기관 간 자원순환 시스템 표준화 추진.</li> <li>- 폐전자제품 1kg 재활용 시 약 2.82kg CO<sub>2</sub> 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재활용 수익은 성금으로 적립·기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계하는 증명형 ESG 실천 모델 구축 방침.</li> </ul>

##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운영기술 베트남 첫 수출 (2026.04.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 호찌민시 켄동 정수장에 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하는 계약 체결. 화성정수장에 적용해 온 AI 물관리 기술이 해외 현장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 총사업비 약 11억 원 규모.</li> <li>- 약품 주입 공정 자율 운영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관리시스템,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정수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약품 주입·에너지 사용·설비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술.</li> <li>- 국내 광역정수장 43곳에서는 연간 110억 원의 운영비 절감 성과 달성. 기후위기·에너지 비용 상승·숙련 인력 부족 등 물산업 과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주목.</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요기요, 다회용기 배달 확대·일회용품 줄이며 2050 탄소중립 선언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바른배달, 지속 가능한 내일' 슬로건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공표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공개. 2026년 ESG 경영 기반 강화, 2028년 친환경 인프라 확산, 2030년 탄소 배출량 실질 감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단계별 목표로 설정.</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법인 차량 전기차 전환과 탄소배출권 구매 등 직접적 탄소 감축체계 마련.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지역 단계적 확대, 앱 내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유지 등 '친환경 배달 문화(Green Delivery)' 조성에 속도.</li> <li>- '그린 오피스(Green Office)' 구축을 통해 페이퍼리스 캠페인 등 업무환경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대하는 등 전사적 ESG 경영 실천 추진.</li> </ul>
	<p><b>□ 강원랜드, 태백산 '희망의 숲'에 나무 600주 식재...ESG 실천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랜드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진행. 태백산국립공원 일대 4,567㎡ 부지에서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여하여 자생종 및 과실수 600주 식재.</li> <li>- 단순 기념행사가 아닌 ESG 경영 연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으로 설계. 임직원 물품 기부 재활용 캠페인, 리조트 유실물 판매 수익, 트레킹 대회 등을 통해 조성된 989만 원 기부금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전달.</li> <li>- 국유림영림단과 협력한 산불예방 캠페인, 자원순환 활동 확대,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 공기업으로서의 친환경 경영 강화 지속.</li> </ul>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 제주은행, 지방은행 유일 'AI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범사업 참여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이 금융위원회 주관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사업에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참여. SCB는 담보·금융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정량 판단.</li> <li>-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특성상 비금융 데이터 활용 실효성이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기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는 차별화된 심사 체계 구축 계획.</li> <li>- 자체 구축한 ERP 기반 전략신용평가모형과 ERP banking 서비스 'DJ Bank'에 SCB를 결합하여 비대면·디지털 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구상.</li> </ul>
<p><b>민간기업</b></p>	<p><b>☐ 에이블클라우드·베슬AI, 국산 클라우드-GPU 플랫폼 통합 협력 추진 (2026.04.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가상화·클라우드 전문기업 에이블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AI GPU 플랫폼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에이블클라우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에이블스택'과 베슬AI의 GPU 플랫폼 '베슬 클라우드'를 결합.</li> <li>- 베슬AI는 이스라엘·미국·핀란드·한국 등 6개 지역 데이터센터와 계약 체결, 연내 GPU 1만 장 규모 인프라 단계적 확충 중. 양사는 공공·지자체 등 고객군이 해외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공동 구축 목표.</li> <li>- 협약에는 GPU 플랫폼 제공 및 운영 지원, 국산 클라우드·AI 플랫폼 통합 솔루션 개발 추진, 공동 고객 지원 및 기술 컨설팅 체계 구축 등이 포함.</li> </ul>
	<p><b>☐ AI반도체 디엑스, 양산 7개월 만에 30여 개 고객사 확보...올해 매출 300억 목표</b></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민간기업</b></p>	<p><b>표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반도체 스타트업 딥엑스가 NPU 'DX-M1' 양산 7개월 만에 현대차·바이두 등 8개국 30여 개 고객사에서 구매주문 확보. DX-M1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대비 전력소비 10분의 1, 연산속도 2배 빠른 온디바이스·피지컬AI 특화 칩.</li> <li>-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이 배송로봇 '달이'에 DX-M1 탑재 결정, 바이두는 초도물량 4만 장 주문. 하반기 고객사 100곳 이상 확대와 매출 300억 원 이상 달성, 영업이익 흑자 목표. 시리즈D 투자유치와 국내 IPO도 추진 예정.</li> <li>- 차세대 제품 'DX-M2'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활용하여 전력소비 5W 미만, 최대 80TOPS 성능 목표. 엔비디아 AI 개발 환경과의 높은 호환성을 갖춘 'DXNN' 플랫폼 개발로 고객 전환 장벽 최소화.</li> </ul> <p><b>□ SK그룹, 창립 73주년 맞아 창업세대 메시지 AI로 재현 (2026.04.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어록·경영 일화를 기반으로 5분 분량의 AI 영상을 제작·공개. 최태원 회장이 "AI를 활용해 창업세대의 패기와 지성 DNA를 구성원과 공유하자"고 제안하여 추진.</li> <li>- 사사와 선대회장 저서, 육성 녹음 3,000여 건의 '선경실록' 등 축적된 기록을 텍스트·음성 통합 학습하여 인물의 화법과 메시지를 재현. 기존 컴퓨터 그래픽·배우 재연 방식과 달리 AI가 스토리 구성부터 음성 합성·영상 제작까지 전 과정 수행.</li> <li>- 최 회장은 "영상과 음성의 정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 SK그룹은 내부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텔링, 인재 교육 등으로 AI 기반 콘텐츠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li> </ul>
<p><b>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p><b>해외</b></p>	<p><b>□ AI모델, 프리미어리그 모의 베팅에서 모두 손실..."지식-행동 격차" 확인 (2026.04.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AI 스타트업 제너럴리즈닝이 공개한 '켈리벤처' 연구에서 GPT-5.4, 클로드</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해외</p>	<p>오피스4.6, 제미나이3.1 프로, 그록4.20 등 8개 AI 모델에 각 1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프리미어리그 가상 베팅을 시행한 결과, 전 모델이 손실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례 시도에서 모두 파산을 면한 모델은 클로드 오피스4.6(-11%)과 GPT-5.4(-13.6%) 둘 뿐이며, 나머지 6개 모델은 최소 한 번 이상 초기 자금 전액 손실 또는 기권 처리. 스포츠 베팅 전문가 자문 결과 1~2위 모델의 전략 정교도도 만점의 3분의 1 수준에 미달.</li> <li>- 연구진은 AI 모델이 정교한 전략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거나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조정하는 데는 실패를 반복한다고 지적. 정해진 해법이 없는 장기 목표 수행에서 현재 AI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li> </ul> <p><b>□ Z세대, AI에 대한 기대감 급감...분노 비율 31%로 증가 (2026.04.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튼 패밀리 재단 · GSV 벤처스 · 갤럽 공동 여론조사에서 AI에 대해 '기대된다'고 답한 Z세대 비율이 지난해 36%에서 22%로 급감.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22%에서 31%로 증가. 일자리 위협 직면에 따른 결과로 분석.</li> <li>- 인식 악화에도 사용률은 정체 수준 유지, 응답자 절반 이상이 매일(22%) 또는 매주(29%) AI를 사용. AI가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 초중고 학생 52%가 졸업 후 AI 사용법 습득 필요성에 동의(전년 47% 대비 상승).</li> <li>- 가장 회의적인 세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준비된 세대라는 분석. 학생 56%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상적 AI 사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변(전년 44% 대비 상승).</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